

여야 4대강-일반 예산 분리협상 합의

한나라, 원내대표 회동서 민주 제안 수용 극한 대치 예산 정국 돌파구 찾을지 관심

여야는 28일 4대강 관련 예산과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협상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투 트랙'으로 분리협상을 하자는데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분리협상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달던 예산안 처리 정국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이 (협상) 시한을 못박지 않고 우리의 제안을 받기로 했다"며 "오늘 곧바로 협상에 들어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예산에 대한 협상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예결위원장인 박병석 의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양당 예결위 간사 체널을 통해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날 새해 예산안의 4대강 관련 예산과 여야가 각자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대한 협상기구를 별도로 구성, 분리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운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4대강 사업,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협상팀이 필요하다"며 "바로 지금 양당의 수

정안을 묶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협상팀을 꾸려야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4대강 사업에 관한 협상팀과 (전체 예산) 수정안 통합을 위한 협상팀을 꾸려서 운영하려고 한다"며 "우리가 제안한 협상에 조속히 응해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을 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안의 핵심 정점인 수자원공사의 이자보전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문제라며 정부 예산으로 돌리고 내년 2월 추경예산 논의 때 다루자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산 조속처리 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 예산처리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세미나'에서 국회의 조속한 예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 노조 창구단일화’ 막판 진통

여야, 산별노조 제외 싸고 이견... 연내 처리 주목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관계법을 둘러싸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노위 소속 차명진(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2시간 동안 회동했지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산별노조 문제 등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창구단일화를 모든 노조에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 추미에(민주당) 환노위

원장의 중재안처럼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해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간사는 회의 직후 "창구단일화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29일에는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린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는 취소됐고 여야가 당초 합의한 '28일까지 상임위 처리'도 무산됐다.

추미에 환노위원장 및 여야 간사, 차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5자 연석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가닥이 잡힐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제5조위원장이신 신상진 의원은 "창구단일화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노사정 합의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추 위

원장의 안과 절충을 시도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산별노조만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위원장은 27일 밤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범위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 문제만 해소되면 일괄 타결이 이뤄져 29일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노위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세종시 입주기업 인센티브 내주 나올 듯

정부, 수정안 마무리 단계 다음달 11일 최종안 발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는 새해 1월 11일이지만 이미 정부는 수정안의 골간을 마련한 상태며 입주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만 최종적으로 포함시키면 되는 상황이라는 것.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대안의 핵심은 기존의 행정복합중심도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종시에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옮기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입주시킴으로써 인근의 대덕특구와 충북 오송을 연결하는 '첨단과학기술 트라이앵글'을 만든다는 것이다.

28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6차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도 독일과 대덕연구개발

특구 시찰단의 성과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면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주 5박6일간 독일의 본, 베를린, 다름슈타트 등을 둘러본 시찰단은 행정부처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덕 특구를 시찰한 송석구 민간위원장도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와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수정안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7차 민간합동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입주시설에 법인 및 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4차레나 충청 지역을 방문했던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충청권 인사와 두루 접촉하면서 마지막까지 '충청 설득'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 사업”

‘대운하 포기’ 대국민 선언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대국민 선언문'을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의 예결소위 구성 방해와 정거 농성으로 정상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준

예산 편성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처지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집행 차지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임동설한에 힘든 삶을 살아가

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며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라고 속이면서 예산심 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대강 사업은 가 물과 홍수예방, 깨끗한 물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며, 대운하와는 전혀 무관한 녹색성장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야당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도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만큼은 당리당락을 초월해 급전 내 통과시키는데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년 국운 융성의 해 될 것”

이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제3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국민 앞에서 조금이라도 낙관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타들어갈 정도로 정말 어려운 한해였다"고 소회를 털어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환경미화원, 119 구조대, 경찰관 등 연말을 맞아 현장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국민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어 저는 항상 마음

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친상을 당하고도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인도양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청해부대 이환욱(21) 하사, 한 달 수입 100만 원 중에서 70만원을 기부하고 있는 광주외교박장사 김수자(56)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진정한 애국과 봉사에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UAE 원전 수주 성공에 언급, "올 연말에 우리나라에 큰 복이 다가왔다"고 답답한 평가를 내린 뒤 "내년은 국운 융성의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는 새해 인사말로 올해 마지막 라디오 연설을 마무리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마무리도 전략이다! 막판 뒤집기! "김영" - www.kimyoung.co.kr

전남대 편입 4주완성 문제풀이
- 2010학년도 전남대 편입시험 2월 3일 발표 -

전남대 편입합격을 위해 김영학원이 제안하는 3단계 비법

개강 1월 4일 (11주 월-목) PM 3시-5시

STEP1

전남대 기출어휘 분석
지난 10년간 전남대 편입시험에 빈출되었던 단어, 숙어 총정리,
어휘준비반 절하고 가도 절반은 성공!

STEP2

전남대 기출문제 풀이
광주김영학원만이 보유하고 있는 과년도
기출자료 집중분석으로
전남대학교 편입영어 유형 완전정복!

STEP3

전남대 예상문제풀이
전남대 편입 전문교수진들의 경험을 높은
예상문제풀이로 올해도 역시 "김영"을 통해
전남대 편입합격완성

2011학년도 대학편입
1학년 기초반 모집

개강 1월 4일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당신의 최종학력은 김영에서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편 062) 222-8088
실시간 문자상담 010-7766-1254